류현진은 1일(한국시간)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경기에 선발 등판해 5⅓이닝 3피안타 2볼넷 1실점했다. 삼진은 무려 9개를 잡아내며 팀의 5-3 승리를 이끌었다.

# 류현진, 973일만의 승리

## 올 시즌 5번째 선발 등판 만에 첫승… '코리안 몬스터' 부활 '신호탄'

류현진(30·LA 다저스)이 무려 973일 만에 승리투수가 됐다.

기나긴 2년여의 재활에 마침표를 찍고 '코리안 몬스터'의 부활을 알렸다.

류현진은 1일(한국시간)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경기에 선발 등판해 5⅓이닝 3피안타 2볼넷 1실점했다.

삼진은 무려 9개를 잡아내며 팀의 5-3 승리를 이끌었다.

올 시즌 5번째 선발 등판 만에 첫 승이다.

지난 2014년 9월 1일 샌디에이고를 상대로 마지막 승리를 거둔 뒤 무려 973일 만에 감격적인 승리를 맛봤다.

2013년 메이저리그에 데뷔 첫 해 14승 8패 평균자책점 3.00을 거두며 연착륙에 성공한 류현진은 이듬해 14승 7패 평균자책점 3.38을 기록하며 변함없는 활약을 펼쳤다.

승승장구하며 박찬호 이후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성공한 한국인 선수로 명성을 쌓아가려는 순간 뜻하지 않은 부상이 발목을 잡았다.

2015년 스프링캠프에서부터 어깨에 이상 조짐을 보였고, 결국 왼쪽 어깨 관절 와순 손상으로 수술대에 올랐다.

투수에게는 치명적인 수술을 받은 류현진은 2015시즌을 통째로 날렸다. 오랜 기간 재활에 매진했지만 복귀 시기도 불투명했다.

앞서 류현진과 같은 수술을 받은 투수들 가운데 성공적으로 복귀한 사례가 드물었던 만큼 재기에 성공하리라는 확신도 적었다.

2016시즌 초반에도 마운드에 서지 못했던 류현진은 지난해 7월 8일 샌디에이고와 홈경기를 통해 선발 복귀전을 가졌다.

하지만 4⅔이닝 8피안타 1피홈런 6실점하며 무너졌다.

설상가상으로 팔꿈치에 이상이 생겨 두 번째 수술을 결정하면서 또 다시 오랜 재활의 시간을 가졌다.

그렇게 2년 여의 시간을 재활에만 매달렸다.

근육량을 크게 늘리며 재기의 칼날을 갈았다.

스프링캠프에 정상적으로 합류해 시범경기 등판을 거치면서 컨디션을 서서히 끌어 올린 류현진은 극적으로 5선발 자리를 꿰차며 개막전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했다.

첫 3경기에서 홈런 6개를 내주는 등 부진한 투구내용을 보인 류현진은 4번째 등판 때부터는 완전히 다른 투구 로케이션을 가져가며 스스로 변화를 택했다.

직구 비율을 대폭 낮추고 체인지업과 커브, 슬라이더 등 변화구로 타자들을 상대했다.

정확한 제구력을 바탕으로 마운드에서 안정을 되찾았다.

지난달 25일 샌프란시스코전에서 6이닝 동안 96개의 공을 던지며 5피안타 1볼넷 3탈삼진 1실점으로 호투했다.

타선의 침묵으로 비록 승리와 인연을 맺지 못했지만 2014년 9월 7일 애리조나전 이후 무려 961일 만의 퀄리티스타트 투구를 하며 부활 조짐을 보였다.

그리고 시즌 5번째 등판에서 무려 삼진 9개를 잡아내는 등 상대 타자를 압도하며 마침내 시즌 첫 승리투수가 됐다.

무엇보다 다저스는 선발 로테이션 재편을 앞두고 있다.

부진이 거듭될 경우 선발진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있었으나 2경기 연속 호투로 코칭스태프의 확실한 신임을 얻게 됐다.

/김민근기자

# 순창군, 전국대회·전지훈련지로 급부상

## 공설운동장, 테니스 하드코트 14면·실내 클레이 8면 시설 갖춰

순창군이 최근 테니스와 정구관련 전국대회 유치에 최적의 시설을 갖춰 향후 전국대회 개최는 물론 전지훈련팀 유치에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군은 최근순창공설운동장내에 바닥에 패드를 설치한 하드코어 6면을 추가로 조성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순창군 공설운동장내 하드코트는 14면으로 늘어났다.

또 실내구장에는 이미 클레이 코트 8면을 갖추고 있어 대회시 총 22면의 코트장을 가동할 수 있게 됐다.

또 본부석 야간스포츠 조명 시설도 함께 설치해 한차원 높은 수준의 경기 진행이 가능하게 됐다.

군은 앞으로도 2018년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대비해 관람석 등 시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 3억 6천만원을 포함해 총 12억원이 투입됐다.

군은 이번 시설 확충으로 전국대회와 국제대회와 같이 규모 있는 대회 유치는 물론 생활체육동호인 대회 유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설 확대를 기반으로 군은 최근 전국대회 마케팅강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스포츠 협회 관계자를 방문해 순창의 인프라와 경기진행 노하우의 장점을 적극 알리는 것은 물론 대규모 대회를 방문해 대회 관계자는 물론 선수와 가족들에게까지 순창의 스포츠 대회 진행 장점등을 적극 설명해 여론 형성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런 적극적 마케팅의 결과로 군은 지난해에만 44개 대회를 유치하고 120개팀이 순창을 찾아 전지훈련을 진행해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방문인원관 7만 6천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를 통해 얻은 경제파급효과도 94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올해도 4월말 현재 2017 ITF 순창국제주니어테니스선수권대회를 비롯해 대규모 대회만 10개 대회를 유치했다.

오근수 체육공원사업소장은 "이번 하드코트 6면 추가 조성으로 대규모 스포츠 대회 유치에 탄력이 붙게 됐다"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규모 대회 유치에 노력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스포츠 마케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완공한 하드코트에서는 첫 경기로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주니어테니스선수권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기자

# 전북현대, 제주 잡고 홈 5연승 이어간다

## 내일 K리그 클래식 9라운드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단장 백승권)이 제주 유나이티드를 넘고 홈 무패행진을 이어가기 위한 경기를 펼친다.

전북은 내일 홈에서 제주 유나이티드와 전주종합경기장에서 K리그 클래식 9라운드를 펼친다.

지난 광주전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에도 불구하고 골대 불운으로 시즌 첫 패를 당한 선수들은 그 어느 때보다 승리에 대한 강한 집념을 보이고 있다.

특히 4번의 홈경기 동안 9득점 2실점으로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어 더욱 큰 기대를 하게 된다.

이승기의 부상 회복으로 숨통이 트인 미드필드진에는 김보경과 신형민이 짝을 이뤄 공격을 전개하고 광주전에서 골대 불운에 울었던 에두가 다시 한 번 득점 사냥에 나선다.

김진수와 최철순이 경고누적으로 빠진 수비진에는 박원재와 이용이 출전해 김민재, 임종은과 함께 공백을 메우게 된다.

최강희 감독은 "팬들의 뜨거운 성원이 있어 올 시즌 홈에서 전승을 기록하고 있다"며 "이번 경기에서도 많은 팬들이 경기장에 찾아 선수들에게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기에서는 최철순, 이용이 준비한 햇빛가리개 겸용 '왕부채' 13,000개를 각 게이트에서 입장하는 팬들에게 선물한다.

/김민근기자